

秋史 金正喜와 樂汕居人·石澹人과의 關係研究

A study on the relation of Ch'usa Kim Chōng-hi
to Yosangōin, and to Shōkdangin.

김 상 태(Kim Sang-tae)*

〈목 차〉

I. 緒 言	V. 書詩의 特性
II. 秋史 略傳	VI. 結 言
III. 流配地의 環境과 疾病	〈參考文 獻〉
IV. 海南에서의 行蹟	〈圖 版〉

〈抄 錄〉

秋史 金正喜가 濟州道 流配에서 풀려나 海南에 머물며 쓴 “花經風雨人方惜 士在江湖道更尊”라는 七言絶句는 작품에 나타난 字體와 紙質만으로도 그의 작품임을 알 수 있으나, ‘樂汕居人’의 落款과 ‘石澹人’의 圖章은 지금까지 알려진 그의 號錄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流配에서 풀려난 秋史가 海南에 滯留하였던 미비한 行蹟을 살피고 이 작품을 쓰게된 동기와 작품에 사용된 落款 및 圖章 등을 통하여 본 七言絶句와 秋史와의 관계를 고찰한 바, ① 秋史는 극심한 팔병으로 作品은 물론 가족에게 보낼 書簡조차도 쓰지 못할 지경으로 流配에서 풀려나 ② 1849년 1월 8일 海南邑 於蘭嶺으로 上陸하였으며, ③ 그곳에서 醫術에 박통한 金繼祖를 만나 元氣의 回復과 팔병을 治療하였고 ④ 그 謝禮로 본 작품을 써 주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작품에 나타난 落款 ‘樂汕居人’과 圖章 ‘石澹人’은 秋史가 사용하였던 밝혀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要語 : 秋史, 秋史體, 金正喜.

* 忠南大學校 中央圖書館 整理課長. 大田保健大學 博物館科 外來教授.
Kimst@cnu.ac.kr

※ 書誌學研究 第15輯에 發表된 論文임.

〈ABSTRACT〉

During his stay in Haenam right after being released from exile in the Cheju Island, Ch'usa Kim Chōng-hi did a calligraphy work, “花經風雨人方惜 士在江湖道更尊”. Its unique writing style and the paper make it self-evident that it is his work. However the signature, 'Yosangōin' and seal, 'Shōkdangin' are not found in his other works.

I examined what happened to him back then in Haenam,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work was made, and studied his seals and signatures. My points are the following :

- At the time of the release from exile, he suffered such a severe pain in the arm that he was incapable of writing letters to his own family, let alone art works.
- He went on shore through E ranjin, Haenam[^]up on 8 January, 1849.
- He recovered from illness with the help of Doctor Kim Kye-jo.
- The work was given to him as a token of his gratitude.
- Though the signature, 'Yosangōin' and seal, 'Shōkdangin' are not found in his other works, they proved to be his own signature and seal.

keywords : Ch'usa, Kim Chōng-hi, Yosangōin, Shōkdangin.

I. 緒 言

筆者는 많은 古書畫를 收藏한 大田의 某氏로부터 그가 특별히 愛之重之하는 <圖 1>과 같은 작품을 보았다. 그는 20년전 그의 先親께서 海南에 있는 知人으로부터 이 작품을 입수하였으며, 당시 知人은 “秋史가 濟州道 流配에서 釋放되고 歸京하는 도중 海南에 머물며 썼던 것임이 先代로부터 口傳된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평소 秋史의 작품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필자는 본 작품을 精査하면서 作品과 圖章에 나타나는 字體에서 秋史의 특징을 直觀하게 되었으며, 사용된 지질도 대략 150년은 된 당시 士大夫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簡札紙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의 落款 ‘樂油居人’과 圖章 ‘石澗人’은 「李家源全集」¹⁾과 「菁南古道觀」²⁾ 등에 蒐錄되어 그의 落款과 號로 알려진 590類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었고, 우리 나라의 저명한 書藝家 靜香 趙炳鎬와 一中 金忠顯, 漢學者 鶴山 趙鍾業과 三正 權寧遠, 秋史體 研究會의 蓮坡 崔定洙와 佳山 崔泳煥 等 關聯人士들도 字體의 특징에서 볼 때 秋史가 末년에 주로 쓴 方筆보다는 燕京에서 돌아온 뒤 翁方綱의 영향으로 즐겨 쓴 圓筆의 특징이 나타나 있고, 老鍊味에서 볼 때 末年作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일단 秋史의 眞筆로 판단하고, 秋史가 濟州 유배에서 풀려나 上京할 때까지의 미비한 行蹟, 특히 海南에서의 구체적인 行蹟을 調査하여, 이 작품을 쓰게된 動機와 이 작품에 있는 落款 ‘樂油居人’과 ‘試病腕’ 및 圖章 ‘石澗人’의 緣由 등을 통하여 秋史 金正喜와의 關係를 考察하고자 한다.

II. 秋史 略傳

秋史 金正喜는 1786(正祖 10)년 6월 3일 慶州 金門에서 아버지 兵曹判書 魯敬과 어머니 杞溪 俞氏 사이에서 長男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高祖父 興慶은 領議政을 지냈고, 曾祖父 漢蓋은 英祖의 장녀 和順翁主와 결혼하여 月城尉에 봉해졌으며 英祖의 繼

1) 李家源, 李家源全集 2, 韓國文學研究(서울: 探求堂, 1969), p.530-532.

2) 吳濟峰, 菁南古道觀(서울: 一志社, 1984), p.204-219.

妃 貞順王后 역시 祖父와 10촌 형제이므로 王室과 중복된 宗戚이 되었고, 伯父 禮曹參判 魯永에게 出系하므로써 月城尉의 奉祀孫이 되었다.³⁾

그는 字가 元春, 號는 秋史를 비롯하여 阮堂·禮堂 등 수백 가지에 이르고 있다. 34세에 大科에 급제를 하고 38세에 奎章閣待教, 41세에 忠淸右道 暗行御史, 42세에 禮曹參議, 51세에 兵曹參判, 54세에 刑曹參判을 거쳐 55세인 6월에 冬至副使로 임명되었으나 10년전의 尹尙度獄에 연루되어 濟州道 大靜縣⁴⁾에서 1848년 12월 6일까지 8년이 넘도록 圃籬安置되는 생활을 보냈다.⁵⁾

또한 1851년 7월 22일에 斷金의 벗 領議政 權敦仁이 眞宗 禮論을 주장한 것에 연루되어 다시 咸鏡道 北靑으로 유배되었고, 다음해인 1852년 8월 14일에 석방되었지만 安東 金門의 勢道가 반석같이 굳은 때라 다시 政界에 복귀하지 못하고, 生父 魯敬의 墓所가 있는 果川에 은거하면서 學藝와 禪理에 몰두하다 1856년 10월 10일 71세로 별세하였다.⁶⁾

일찍이 그는 北學派의 일인자 朴齊家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가 되었고, 24세 때에는 동지부사인 아버지를 수행하여 연경에 체류하면서 翁方綱·阮元 등과 접하였다. 그 때 金石學·文字學·書道史의 研究와 經學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귀국 후에 金石學研究는 물론 금석자료의 搜探과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北漢山巡狩碑를 발견하고, 「禮堂金石過眼錄」·「眞興二碑攷」 등의 역사적인 저술을 남겼다.

또한 그의 藝術은 詩·書·畫 一致思想에 입각한 청나라 考證學을 바탕으로 翁方綱의 書體를 따라 배우면서 趙松雪·蘇東坡·顏真卿 등의 書體를 익히고, 漢·魏시대의 여러 隸書體가 書道의 根本임을 看破하여 이를 본받기에 心血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長點을 바탕으로 獨創의인 書體를 創出한 것이 秋史體이다. 이것은 濟州道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된 것으로 타고난 天稟과 무한한 단련을 거쳐 이루었고, 이 서체에는 일정한 법식에 구애되지 않는 秋史만의 법식이 있다.⁷⁾

3) 金泳鎬, “秋史 金正喜”, 文學思想, 11月號(1976. 11), p. 316.

4) 大靜縣은 現在の 濟州道 南濟州郡 大靜邑을 말함.

5) 金膺顯, “秋史書體의 形成과 發展”, 韓國의 美 卷17, (서울: 中央日報社, 1993), p. 184.

6) 崔完秀譯, 秋史集, (서울: 玄岩社, 1980), p. 23.

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卷4,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1), p. 881.

Ⅲ. 流配地의 環境과 疾病

1. 環 境

秋史의 제주도 유배생활은 지금의 刑法으로는 가늠하기 곤란한 刑罰,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도 釋放될 것인지, 당장 賜死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정 禁衛할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피를 말리는 생활이다.⁸⁾

그가 생활하였던 당시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은 텃밭으로 남아 있으나 유배지에 도착하고 곧 둘째 아우인 命喜⁹⁾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書翰에서 어느 정도 가옥의 構造와 環境은 짐작이 가능하였다.

온돌방은 한 칸인데, 南向으로 눈썹 같은 텃마루가 있고 동쪽에 작은 부엌이 있으며, 부엌 북쪽에는 두 칸쯤 되는 부엌이 있고 광이 한 칸 있는데, 이것이 바깥채일세! 그리고 안채로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안채는 곧 주인으로 하여금 옛날과 같이 살게 하고 있다네! 다만 이미 바깥채를 半分하여 나누어도 족히 살만하니 작은 부엌을 온돌방으로 고치면 손님이나 종들도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변동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하네! 울타리는 집의 형태를 쫓아서 둘렀는데 섬돌 사이에 밥을 들여 올 수 있는 곳을 터놓았으니 분수에 지나칠 뿐 일세! 주인도 지극히 순박하고 조심성이 있어서 다행한 일일세! 조금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으니 심히 감탄할 만한 일일세! 이밖에 자질구레한 일에 설혹 불편이 있다고 한들 어찌 참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¹⁰⁾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55세부터 63세까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8년이란 긴 세월을 텃밭 만한 방에 갇힌 채, 30년동안 同苦同樂한 부인이 죽게되자 生離死別의 痛恨을 품

8) 果川郷土史編纂委員會, 果川郷土史, 下卷, (과천 : 뿌리出版社, 1993), p.202.

9) 金命喜(1788 - ?) : 字는 性元, 號는 山泉, 秋史의 仲弟이고, 글씨를 잘 썼다. 벼슬은 江東의 縣令을 지냈음.

10)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 永生堂, 昭和九年) p.8右.

“則爲一間 南向有眉退 東有小廚 自小廚北有二間廚 又有庫舍一間 此則外舍 而又有內舍之如 此者 內舍則使主人 依舊入處 只既外舍割半分界 足以容接 小廚行將改 則客輩 又可以入 處 此則不難變通云矣 籬圍遵家形址爲之 庭階之間 亦可以行飯所處 則於分過矣 主人亦極淳謹 可喜耳 無幾微苦色 甚庸感歎 外此 細 設有不便 豈無地忍之道也”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從兄 教喜와 사촌 누님의 訃音을 받기도 하였고, 還甲 역시 그곳에서 쓸쓸히 보냈다.¹¹⁾

이렇듯 감당하기 힘든 생활과 거듭되는 가까운 친척의 죽음은 그로 하여금 불행에 빠지게 하였던 것만은 사실이나, 이러한 환경들을 讀書로 극복하고 書畫로 승화시켜 그의 작품은 범상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脫俗한 境地에 이르게 되었다.

2. 疾 病

秋史는 이 작품에서 試病腕, 즉 팔병을 시험한다고 하였다. 보통 서예가들은 病夫, 病老人, 病處士 등과 같이 '病'字를 號에 붙여 元老 또는 謙遜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秋史 역시 病居士, 病阮, 病果 등을 사용한 예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도 謙遜의 뜻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팔병이 있어서 사용된 것인지를 유배지에서 家率들에게 보낸 書翰을 통하여 살펴보자.

1844년 1월 商懋¹²⁾에게 "입과 코에서 바람과 火氣가 나는 症勢가 겨울서부터 봄까지 계속 이렇게 고통을 주니 걱정일세!"¹³⁾라 하였으며, 命喜에게는 "헛바늘이 들고 코가 막히었는데, 이러한 苦痛을 당하고 있는 것이 대어섯 달이 넘는다네! 藥으로 고치고자 하나 그럴 수도 없으니, 어디 이렇게 지리하고 難堪한 일이 있겠는가! 먹는 것도 삼키기 어려운데 삼킨 것조차 명치끝에 걸려 소화가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한 가닥 실날같은 생명이 구차스럽게라도 이어진다면 소식을 줄 수 있을 뿐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팔이 저리고 가려운 症勢도 또한 한가지로 나타나니, 무슨 業報로 이렇게 두루 苦痛스러운지 모르겠네!"¹⁴⁾라고 하였다.

1845년 2월 막내아우인 相喜에게 "요사이 눈병이 더 심한 때문에 붓을 잡고 글씨를

11) 果川郷土史編纂委員會, 果川郷土史, 下卷, (과천: 뿌리出版社, 1993), p.206.

12) 金商懋(1819-?): 字는 景德, 秋史의 養嗣子, 生父는 秋史의 12촌 金泰喜, 哲宗9년에 生員, 參奉를 지냈음. 秋史가 濟州道에 流配된 다음해(1841)에 入養.

13)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22左.
"吾口鼻風火自冬涉春如是作苦悶切"

14)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9左.

"吾舌瘡鼻 尙此作苦 彌延五六朔 雖系醫藥之 無以爲之 而寧有如許支離難堪者 食物轉難嚥下者 又滯膈不消 實不知何以爲好 若一縷苟延 則與之消息而已 亦奈何 臂疼與痒症 又一以并 肆 此是何報而偏苦若此耶"

쓸 리가 만무하지만, 聖上의 神靈하신 뜻이 멀리까지 미쳐오니, 15·6일을 소비한 工力으로 겨우 扁額 세 폭과 두루마리 셋을 써내었네!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병든 눈으로는 절대 더 계속하여 쓸 방도가 없어서 되돌려 보내야겠느니, 官署에 맡기어 말쑥을 잘 드리도록 하세!”¹⁵⁾라 하였으며, 그해 여름 둘째 아우인 命喜에게는 “몸은 앞서 편지하였던 때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네! 콧병은 한결같고 입 속에는 風氣와 火氣가 배로 치밀어 올라서 이마다 흔들거리니 씹을 수도 없다네! 한달 전부터 먹은 것을 씹어 삼킬 수가 없어 먹는 것을 줄이고 있네! 위장에서는 받아들이고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네! …… 이번 편은 우리 집에서 부리는 사람이라 몇몇 군데에 편지를 쓰려고 하였으나 팔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 마음먹은 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어, 겨우 집에 보내는 글만 이렇게 썼을 뿐이네!”¹⁶⁾라 하였다.

또한 1846년 봄 막내아우 相喜에게 “꽃은 전 모양 그대로이나 痰과 咳嗽이 크게 더 심하게 되어 그 기침이 급해서 기세를 돌이킬 수 없을 때는 피가 나오는 症勢까지 겹쳐서 일어나니, 毒氣있고 濕한 氣候의 風土가 禍根이 아닌 것이 없다네! 샘물이 좋지 않아서 뱃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여 뚫리지 않고, 눈 어두운 것은 더하면 더하였지 낫지를 않고 있네! 봄의 毒한 기운이 또 일찍부터 일어나니 그 毒氣를 견딜 수가 없어 나 자신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네!”¹⁷⁾라 하였고, 弟子 申觀浩에게는 “그 나머지는 팔병이 나서 억지로 할 수 없으니, 신기가 조금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다시 생각해 볼뿐일세! …… 내 隸書는 거절하기 어려워 병든 팔을 움직이고 병든 눈을 씻으면서 자네의 이 부지런한 뜻을 막았으니 보내는 것만 보고 받아두는 것이 어떻겠는가!”¹⁸⁾라고 하였다.

1848년 정월 막내아우 相喜에게 “이렇게 命이 걸려 또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病勢는

- 15)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19右.
 “近因眼花轉字 萬無由執管臨池 王靈攸 費得十五六日工力 得寫就 扁三卷三 而餘外二卷 以 若花轉 萬萬無續寫之道 未免還爲呈納 據棠陳白”
- 16)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14右左.
 “此狀 較之前報 別無更添 而鼻痒一如 口中風火之氣 一倍煽動 衆齒 搖 轉不能咀嚼 一月以前 所食者 不能咀下 緣是減食 胃氣則雖欲引入 亦無奈何 不知何以爲好矣…… 此便既係家 欲裁 書於如于處 而 臂疼與眼花 萬無以隨意作字 作家書”
- 17)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17右.
 “吾狀一如前邊樣 而痰今大爲添劑 其今急氣不旋之時 血症并發 無非尙濕爲崇 水泉不佳 積鬱 滿不散 眼花有加無減 春장又早作 不能耐尙 較益甚焉 恐無以支吾矣”
- 18)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37左-38右.
 “其餘病腕 無以強之 追當於神氣小勝時 再量耳…… 拙隸 難強 運此病腕 此病眸 寒此動意 覽 收如何”

痼疾이 되어 전에 쓴 편지에서 말한 것과 같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네!”¹⁹⁾라 하였고, 석방되기 3개월 전 命喜에게는 “요사이 눈이 더욱 침침하고 먹은 것이 내리지 않는 症勢가 점점 심하여 밥상을 대하면 문득 욱지거리가 나서 전혀 목구멍으로 내리는 것이 없으니 神氣가 갑자기 다하여 收拾할 수가 없네! 이 글도 쓰려고 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이제야 붓끝을 적시나, 이어서 써 나갈 수가 없으니 어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오로지 그대로 두어 둘 뿐일세! 비록 藥으로 고치고자 하나 藥材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²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유배지를 떠나면서 막내아우 相喜에게 “내 병은 이미 팔구십 일이 되었으며, 이제 해가 바뀌었네! 그 때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먹은 것이 그대로 삭지도 않고 거둬 비가 오듯 쏟아져서 매일 두어 사발씩 나오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된 죽이나 전밥(蒸飯) 같은 것을 먹기 시작하였으나 먹는 것이 몇 순갈 되지 못하네! 이와 같이 점차 밀어 나가지만 잘못될지,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겠나!”²¹⁾라 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과 보잘것없는 衣食住에서 4년이 지난 1844년 정월부터는 점차로 몸이 허약해졌고, 허약해진 몸은 환절기마다 신체의 각 부분에서 병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팔병이 극심하여 작품은 물론 家率에게 보낼 書翰조차도 쓰지 못할 지경으로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19) 金翎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17左.

“此頑忍又作新年人 病情轉痼 一如前書所報 無少增減”

20) 金翎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8左.

“吾此近來 眼花益添 阻食之證轉甚 對案輒欲嘔 全無所下喉者 神氣隨以 頓 收拾不得 此書經營 多日 今始染毫 亦不能接續寫就 不知其何緣如此 亦惟任之 雖欲醫藥 又無藥料 亦奈何”

21) 金翎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21左.

“尤至吾病 今已八九十日 又此經年 非不少勝於月計之際 而所喫仍 以大雨重三 日例二椀 開歲 以後 始試如粥之重蒸飯 而所進不得幾匙 如是 漸次推得去 安知不又大嚼耶.”

IV. 海南에서의 行蹟

1. 交友

1) 艸衣禪師

艸衣²²⁾는 181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秋史를 만났고, 秋史는 그에게 가장 친한 벗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이들의 交遊는 맑고 깨끗하여 남다른 존경과 깊은 우정이 따랐으며, 茶道를 인연하여 이루어진 親交는 禪이나 詩, 글씨와 그림 등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다. 이들은 思想面에서나 嗜好面에서도 많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항상 茶의 향기가 스며 있었다.²³⁾

또한 秋史가 제주도로 유배된 후에는 海南의 大菴寺에 머물면서 내왕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기도 하였고, 1842년 11월 13일 秋史의 부인이 임종하자 1843년 1월초 濟州道로 건너가서 부인의 죽음에 問喪하였으며,²⁴⁾ 1848년 5월초 茶를 보내 달라는 秋史의 서한을 받고 濟州道로 건너가서 半年을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²⁵⁾

그리고 秋史가 세상을 떠나자 1858년 2월 22일 清明節에는 아래와 같은 祭文을 지어 筵에 바치기도 하였다.²⁶⁾

오호라! 그대와 나의 42년동안의 아름답던 友情이여! 그 友情일랑 다음 저 世上에서도 오래도

22) 艸衣禪師(1786-1866)는 法名이 意恂, 俗姓은 張이며 本貫은 羅州이고, 字는 中孚이며 號는 艸衣이고, 堂號는 一枝庵이며 全北 茂安 出身이다. 15歲 때에 南平의 雲興寺에서 僧侶가 되어 金潭에서 禪을 닦고 倫佑의 法을 이어 받았다. 敏聖을 恩師로 得道하였고, 大菴寺에서 玫虎에게 具足戒를 받았다. 丁若鏞이 康津에 謫居하여 있을 때 그에게서 儒學과 詩文을 익히기도 하였고, 申緯 秋史 등과 親交를 맺었다. 그리고 海南 頭輪山에 一枝庵을 지어 40년 동안 止觀을 닦았고, 서울 奉恩寺에서 《華嚴經》을 새길 때에 證師가 되었으며, 達摩山에 無量會가 創立되자 그 講席을 主宰하였다. 梵書에 能通할 뿐만 아니라 詩·書·畫 및 茶道 에까지 博通하였던 朝鮮時代의 學藝僧이다. 著書로는 《東茶頌》 《一枝庵遺稿》 《禪門四辨漫語》 《二禪來義》 등이 있다.

23) 海南郡史編纂委員會編, 海南郡史, (광주: 全南日報出版局, 1980), p. 690.

24) 澗松美術, 秋史精華, (서울: 知識產業社, 1983), p. 264의 年譜.

25)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서울: 우리출판사, 1992), p. 277.

26) 龍雲編, 艸衣禪師全集, 영인본, (서울: 亞細亞文化史, 1985), p. 299-300.

“嗚乎四十二年不 金蘭交契幾千百劫共結香火因緣別遠會稀遺書常密封面紆尊降貴發語時多忘形 瀛海慰 半年蓉湖留雨載有時談道爭聲危如暴雨迅雷有時論心和氣調若春風惠日手煎雷炎雪乳同傾 耳觸聲悲羅衫 具濕生前一晤憑珠鏡而 身發雙悲併龍鸞而彌切嗚乎委盡黃花零白雪恨我起行 遞……”

록 이어 나가세! 생각건대 그대와 나는 이승에서도 자주 만나지 못하였으나, 나는 그대의 글을 받을 때마다 마치 그대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고 그대와 만났을 때에는 진정 허물이 없었으니! 우리는 濟州道에서 半年을 함께 지냈고 蒼湖에서 두 해를 함께 살았었구려!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때로 道에 대하여 談論할 때면 그대는 마치 暴雨를 뿌리듯 우리를 쏘는 듯 당당하였고, 때로 情談할 때면 그대의 말씨는 봄바람이 부는 듯 사근사근하였으니! 그대와 나는 손수 雷莢茶와 雪乳茶를 달여 마시곤 하다가 어찌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많이도 울었으니! 그때의 그대의 모습이 지금도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또렷하이! 슬프도다! 그대를 먼저 떠나보내는 나의 애틁는 심사여! 黃菊이 흰 눈발에 시들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늦게 그대의 靈前に 당도하였을꼬!

2) 金繼祖

本貫은 金海이며 濯纓 駟孫의 11대 養孫이고 吉湖里²⁷⁾에 사는 선비로서 그의 아버지는 道村 金仁恒(1749-1828)²⁸⁾이다.

道村은 孝行이 출중하여 조정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下賜品이 내려졌고 獎勵되었으며, 일생동안 官職에 나아가지 않고 鄉里에 살면서 후손의 養育과 後學을 指導하는 선비였다. 수많은 農土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마리의 사슴을 飼育하고 있었기 때문에 隣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²⁹⁾

또한 禮文과 風流에 뛰어나고 性品이 매우 호탕하였으며, 「呂氏鄉約」의 四節目인 德業相勸·過失相規·禮俗相交·患難相恤 등에 대한 해석을 가하기도 하였다. 교우로 萬柏在主人 廣巖 金聘齡, 艸衣 張意恂, 茶山 鄭若鏞 등 다수의 文士들과 왕래하면서 교류하였고, 茶道에도 깊이 深醉하여 茶나무를 가꾸고 茶를 直接 製造하였다.³⁰⁾ 그때 심었던 茶樹는 그의 五代孫 湖隱 興鳳이 日政末까지 吉湖里에서 가꾸었다.³¹⁾

이렇듯 자연을 벗삼아 悠悠自適한 그의 생활과 환경에 대하여 艸衣는 아래와 같이 한 수의 詩로 표현하고 있다.³²⁾

27) 吉湖里는 現在의 全羅南道 海南郡 海南邑에 있는 마을.

28) 金命孝, 道村遺稿 卷之下 行狀條, p.3左.

29)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71.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제4권, (서울:웅진출판사, 1991), p.856-857.

31) 海南郡史編纂委員會編, 海南郡史, (光州:全南日報出版局, 1980), p.431.

32) 海南郡史編纂委員會編, 海南郡史, p.591-592.

“道村恬養處 心遠日遲遲 徑逼幽蘭 門臨曲沼 鍊藥削開疾 品茶減睡癡 宿昔烟霞約 清秋始赴 筵”

드넓은 평화한 마을에서 그대 태평하게 사나니
 뜰에는 난을 기르고 문 밖에는 연못도 봤소이다!
 스스로 약 만들어 병 고치고 좋은 차까지 마시나니
 다시 만나자는 언약은 올 가을쯤으로 해두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아버지의 薰陶로 學問과 家業을 이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疾病에 대하여 직접 治療할 수 있을 만큼 醫術도 공부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교분이 두터웠던 艸衣 역시 그와 나이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茶道와 因緣하여 아버지 못지 않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내왕하는 사이였다.

3) 玉花

玉花는 海南縣 勢道家인 金參奉宅의 宗婦이며 寡婦인 안산택의 행랑채에 얹혀 살면서 그 택의 시중도 들고, 때로는 밖으로 드나드는 나이 30이 넘는 姪生이었다. 비록 나이는 30이 넘었으나 完熟期에 접어든 고운 姿態를 지니고 있고, 또 인근에서 따를 사람이 없는 歌舞의 실력과 선비들의 詩會에도 서슴없이 기여들 만큼 공부도 하여 아무나 넘보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 여인이다.³³⁾

그녀가 살던 金參奉宅은 累代에 걸쳐 大菴寺에 다니는 불자 집안이었으므로 그 택의 宗婦인 안산택 역시 자주 大菴寺를 찾았으며, 艸衣를 따르는 불심 깊은 寡守였다.³⁴⁾

이러한 연유로 그녀 역시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안산택을 따라 大菴寺를 출입하게 되었고, 그 때마다 자연적으로 艸衣와 만날 機會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海南의 여러 선비들과의 交友를 통하여 艸衣와 남달리 交分이 두터웠던 편이었다. 그러나 秋史에 관해서는 艸衣로부터 간간이 이야기만 들었을 뿐 잘 알지 못하였다. 다만 秋史가 濟州道로 유배 갈 때 잠시 大菴寺를 거치게 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처음 만나게 되었다.³⁵⁾

1848년 5월초 秋史를 만나기 위하여 艸衣는 濟州道로 건너갔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艸衣의 안부가 궁금했던 안산택의 부탁으로 그녀는 濟州道로 갔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사흘동안 지내게 되었다.³⁶⁾ 그 때 秋史는 그와 이별하면서 아래와

33)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 123.

34)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 16.

35)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 123.

36)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 125.

같이 이야기하였다.³⁷⁾

내일 모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내 처지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 이 섬에서 풀려나 육지를 밟는 날에는 가장 먼저 그대를 찾겠네! 고맙다거나 아쉽다거나 하는 말은 하გი조차 부끄럽구먼!

이렇듯 그녀는 秋史와 비록 짧은 만남이었으나 많은 交分을 나누게 되었다.

2. 秋史의 行蹟

1849년 1월 7일 濟州 流配地 出發.

秋史는 유배에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1848년 12월 19일에 받은 書翰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³⁸⁾ 그리고 1849년 1월 7일 그곳을 떠나 浦口에 도착하였으나, 육지로 가는 배편 때문에 濟州城 밑 金吏집에서 하루 밤을 묵었다.³⁹⁾

1849년 1월 8일 海南 於蘭鎮 上陸.

秋史는 1월 8일 濟州를 떠나 오후에 海南의 於蘭鎮⁴⁰⁾으로 상륙하여 일행과 같이 大菴寺 一枝庵에 있는 艸衣를 만나고자 快年閣⁴¹⁾에 도착하였다.⁴²⁾

一枝庵은 北向으로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에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배생활로 쇠약해진 그가 머물기에는 적당한 곳이 될 수 없었으므로 快年閣에 자리를 잡고, 艸衣에게 소식을 전하였다.⁴³⁾

1849년 1월 9일 - 1월 11일 大菴寺 快年閣 滯留.

37)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40.

38)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21左.

“喜報之來 在於去臘十九”

39)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21左-22右.

“七日自靜而發向本州一宿於州底金吏家”

40) 어란진(於蘭鎮)은 現在의 全羅南道 海南郡 松旨面 於蘭里에 있는 浦口임.

41) 快年閣은 大菴寺를 찾아온 손님들을 모시는 객관이다.

42)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서울: 우리출판사, 1992), p.144.

43)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45.

秋史의 소식을 듣고 玉花가 왔다. 그들은 濟州에서 헤어진 후 再逢이었으니 그 정감 이야 어찌 말로써 표현할 수 있었겠는가. 거듭거듭 감개가 무량할 따름이었다. 대충 인사를 마친 玉花는 두 어른의 점심공양을 준비하였으나, 비린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寺刹 밖 遊仙閣⁴⁴⁾에 차려두었다고, 그들을 초대하였다.⁴⁵⁾

이것은 秋史의 蘇復을 위하여 안산대이 마련한 것으로서 龍鳳湯과 漁饅頭와 晉陽酒와 칠과茶 등이 푸짐하게 갖추어져 있었다.⁴⁶⁾ 도중에 玉花는 몇몇 고을 선비들이 秋史를 뵈고자 동행하였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그곳에 도착하여 선비들과 인사를 나눈 후 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秋史는 玉花의 권고로 약주도 몇 잔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⁴⁷⁾

이 때에 冥·庭·星·萍·去·霽을 韻字로 한 詩會를 가졌고, 秋史는 제주에서 艸衣와 작별할 때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시 한 수를 남겼다.⁴⁸⁾

만나자 이별, 이런 슬픔 또 어디 있으려나
 이별 어려워 발이 뜰에서 떨어지지 않도다!
 내 그대 시 매일 읊어 벌레 슬지 않게 하려니
 부질없이 덧없이 늙어 가는 이네 한 몸이어!
 소매에 스미는 가을 기운 쓸쓸하기만 하나니
 그대의 뱃길을 마름풀이 붙잡을 것이 도이다!
 남곽(海南縣)으로 그대가 떠나가신 후에려니
 국화 피고 지는 것 보며 외로움을 달려련도다!

艸衣 역시 그때를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⁴⁹⁾

44) 遊仙閣은 大菴寺 解脫門을 지나 개천가에 세워진 樓閣으로서 그 골의 유생, 한량, 아전들이 소풍 나와 노는 곳.

45)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47.

46)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48.

47)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49.

48)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50.

“乍逢旋別曉沈冥 未忍相分久立庭 日閱君詩應不 夢勞吾 易添星 還憐秋氣 歸袂 望舟行 泛萍 從此又當南郭去 可堪籬菊任開零”

49)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51.

“秋氣澄槿積翠冥 半輪明月可中庭 列朝勳業傳青史 一國清門照德星 山客幾霑孔融酒 江商時進楚 王萍 傷心送我南州去 可奈金風玉露零”

아! 아! 가을이라 고요가 쌓이나니
 조각달이 뜰 안에 가득히도 찻도다!
 역대 군왕의 위업 청사에 전하려나
 드높은 가문은 덕성으로 빛나리도다!
 나 공음주를 받은 것이 몇 번이려나
 강상의 초왕평 먹은 게 얼마이런 가!
 나를 남주로 보내며 슬퍼하는 그대
 가을 바람 이슬 떨어지는 모습이리라!

이렇듯 秋史는 快年閣에서 사흘 밤을 지냈다. 이제는 禮山의 故鄕으로 그리고 한양
 의 月城尉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
 는 그를 보고 艸衣는 쑥밭으로 변했을 집안의 慘狀과 어쩔 수 없이 대치하게 될 政敵
 들의 냉랭한 눈초리가 두려워서 떠나기 싫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⁵⁰⁾

1849년 1월 11일 - 1월 13일 黃樞園宅 滯留.

艸衣는 떠나지 않는 秋史의 심사를 떠 볼겸 평소 내왕이 있던 선비 黃樞園宅으로 출
 행하자고 하였다. 秋史 역시 좋다고 하여 휴식도 할겸 가벼운 차림으로 玉花와 같이
 나섰고, 상우와 시중꾼은 어른들의 대화가 불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快年閣에 남기로
 하였던 것이다.⁵¹⁾

黃樞園은 康津 道岩의 白象山에 一粟山房이라는 조그마한 草堂을 짓고 晴耕雨讀하
 는 선비로서 丁茶山에게 10년간 薰陶를 받은 實學과 禮樂의 達人이었다.⁵²⁾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여 雀舌茶와 蓮葉酒를 마시며 이들을 지냈고, 다음날 우연히
 그와 사돈지간인 吉湖里에 사는 金繼祖가 왔다. 그리고 그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진 秋史를 보고, 자기집으로 초대하여 元氣를 회복하도록 청하였다.⁵³⁾

1849년 1월 13일 - 2월 7일 金繼祖宅 滯留.

50)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57.
 51)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59.
 52)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66.
 53)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71.

金繼祖는 秋史 艸衣 玉花와 같이 자기집으로 돌아왔다.⁵⁴⁾

그리고 자기집 사슴에서 수획한 鹿茸과 韓藥材를 사용하여 加味鹿茸大補湯과 鹿腎酒를 만들어 秋史의 허약해진 몸과 팔병을 간호하였다.⁵⁵⁾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秋史는 제주도 유배에서 팔병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1852년 함경도 北靑에서 유배생활 도중에 보낸 書翰에서는 “눈병이 더위에 더쳐서 편지 온 곳에 하나하나 써 보낼 수가 없다.”⁵⁶⁾ 하였고, 1856년 10월 10일 果川에 있는 自家別墅 瓜地草堂에서 작고하기까지의 행적 역시 노환에 따른 이야기는 종종 나타나고 있지만 팔병에 따른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秋史의 팔병은 이 때 完治 혹은 完治에 가깝도록 치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秋史는 이러한 厚意에 보답하기 위하여 <圖 3>을 써 주었다.⁵⁷⁾

3. 歸京

1849년 2월 7일경 大茆寺 出發.

1849년 2월 8일경 康津 到着.

禮山으로 가는 도중 康津 大口 沙堂의 堂前窯에 사는 陶工 曹智元에 도착하여 하루 밤을 묵었다.⁵⁸⁾

1849년 2월 9일경 무진 到着.

무진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전주에 당도하였다.⁵⁹⁾

1849년 2월 10일경 全州 到着.

54)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71.

55)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76.

56) 金翺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23右.

“眼花當暑信劇 書來處不得一一作 若但此一紙平安寄去 及於諸處可耳”

57)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80.

58)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95.

59)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96.

完州郡 上關面 孔器里에 살고 있는 蒼巖 李三晩⁶⁰⁾을 만나기 위하여 도착하니 벌써 2년 전 1847년 2월 12일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제자들이 상발청을 지키고 있었다. 따라서 秋史는 衣冠을 갖추고 상발청에 나아가서 問喪을 하였다.⁶¹⁾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名筆蒼巖完山李公三晩之墓”라는 墓表와 “公筆法冠我東老益神化名播中國弟子數十人日常侍習亦多薦名于世取季弟子爲后”라는 陰記를 지어 주었다.⁶²⁾

이 墓表는 후손들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갖석이 없는 조그만 돌에 새겨져 蒼巖의 幽宅이 있는 完州郡 九耳面 下尺里에 지금도 남아 있으며,⁶³⁾ 陰記는 보관하다가 戰亂으로 유실된 듯하다.⁶⁴⁾

V. 書誌的 特性

1. 形態書誌的 特性

1) 紙質

작품에 사용된 종이는 다나무가 원료인 楮紙 혹은 壯紙이며, 書翰에 주로 사용된 簡札紙이다. 前幅은 上紙 30.0×13.5cm, 中紙 30.0×61.0cm, 下紙 30.0×43.5cm, 後幅은 上紙 30.0×40.0cm, 中紙 30.0×61.0cm, 下紙 30.0×17.5cm인 세 조각을 풀로 연결하였고, 각 쪽의 크기는 30.0×117.0cm이다. 그리고 각 쪽의 中紙에서 완전한 한지의 크기가 30.0×61.0cm이고, 앞쪽의 下紙와 뒤쪽의 下紙를 연결할 경우 30.0×61.0cm가

60) 이삼만(李三晩 : 1770.9.28.-1847.2.12.) 서예가. 자는 윤원(允遠), 호는 창암(蒼巖), 본관은 완 산(完山)이고 기철(技詰)의 둘째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글씨 쓰기에 몰두하고 병중에도 하루 1천자씩 연습. 벼루를 세 개나 구멍을 냈다고 전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서예(書藝)에만 정진. 마침내 가산이 탕진되었으며, 글씨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자 한획을 가르치는 데 한 달씩이나 걸렸다. 원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연히 부산(釜山)의 상 인이 전주에 들러 그의 글씨를 얻어다 감상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영조·정조 때 명성을 떨 치게 되었다. 전주의 제남정(濟南亭)과 하동의 칠불암(七佛庵)의 편액이 전하고 있다.

61)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196.

62) 金鎮惇, “蒼巖 李三晩 書藝研究 VIII”, 月刊書藝 通卷201號(1998.5), p.104.

63)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p.206.

64) 金鎮惇, “蒼巖 李三晩 書藝研究 VIII”, p.104.

되므로 같은 장에서 재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쓰기 위하여 준비된 종이라면 당연히 각 폭의 上紙가 30.0×61.0cm 크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각 폭의 上紙가 조각난 종으로 연결된 것을 볼 때 이미 위 부분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圖 3>을 쓰기 위하여 재단된 것이라 생각된다.

秋史의 遺墨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宣紙, 그 중에서도 高級品인 金粉紙 또는 文樣紙이다. 이 宣紙는 運筆을 좋게 할뿐만 아니라 韻致도 나타낼 수 있고, 어떠한 글씨체를 쓰더라도 잘 받는 것이다. 그러나 먹물이 진하면 붓이 잘 나가지 않고, 흐리면 너무 번지므로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반면 숙련자는 자연스럽게 運筆할 수 있는 것이다.⁶⁵⁾

이러한 이유로 秋史는 1845년 濟州 유배지에서 막내아우 相喜에게 보낸 書翰에서는 “보내 준 종이는 백반 물을 너무 세게 먹여 붓을 놀리기에 마땅치 않아 도리어 이 종이만 도 못하다. 비록 板刻할 原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종이에다 써야 하는데, 板刻의 原本이라 해서 종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글씨 쓰는 어려움을 모르는 일이다!”⁶⁶⁾라고,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작품을 簡札紙에다 썼으니, 이는 그가 이 곳으로 올 때 筆囊과 종이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또 준비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즉석에서 구할 수 있는 簡札紙를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비들은 대부분 韓紙를 미리 풀로 연결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면, 필요한 만큼 펼쳐서 사용하고, 사용 한 나머지는 다시 말아 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士大夫의 가정에서는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종이다.

2) 筆

이 작품의 본문 글씨는 <例 1>과 같이 草書體가 가미된 15.0×12.0cm 정도의 行書體이며, 그가 64세 때에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세에 쓴 <例 3>과 비교하여 볼 때 秋史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方筆보다는 중국 燕京에서 還國한 뒤 翁方綱의

65) 민상덕, 書藝百問百答, (서울: 미진사, 1991), p.163.

66)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20右.

“而來紙礮水太過 不合於使筆 反不如此紙矣 雖刻本必佳紙 然後可書 以刻本 而不計紙者 不知書之艱難處矣”

영향으로 즐겨 쓴 〈例 2〉와 같은 圓筆로 쓰고 있다.

江湖惜道在方

〈例 1〉⁶⁷⁾

江湖看細在方

〈例 2〉⁶⁸⁾

蓬青渡海淨清

〈例 3〉⁶⁹⁾

일반적으로 書藝道具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붓이다. 따라서 書藝家들은 나름대로 아끼는 붓이 있고, 秋史 역시 濟州道로 유배되어 온지 6년이 지난 61세 때 제자 申觀浩⁷⁰⁾에게 보낸 書翰에서 “清愛堂筆 한 자루를 또 여기에 부쳐 보내네! 이것은 石庵⁷¹⁾이 예전에 만든 것인데 일찍이 두세 자루를 얻었더니, 굵고 가늘거나 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없더군! 내가 쓴 隸書와 楷書는 오로지 이 붓으로만 썼는데, 한 자루로 20년을 썼으나 상하지 않았네!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지만 자네가 아니면 결단

67) 이것은 本稿의 작품 (圖1)에서 一部를 橫으로 集字한 것.

68) 送羅兩峯詩 行書 紙本墨書 24×67cm 서울 個人藏, 扇面山水圖 紙本水墨 22.8×607cm 서울 個人藏, 送雲卿入燕詩 行書 紙本墨書 30.7×111.2cm 國立中央博物館藏에서 一部를 橫으로 集字한 것.

69) 與霽月老御眼偈 行書 紙本墨書 25.7×126cm 서울 申孝忠藏에서 一部를 橫으로 集字한 것.

70) 申櫛(1810-1888) : 字는 國賓, 號는 威堂. 初名은 觀浩, 本貫은 平山. 金위영대장, 통제사, 병조판서, 경리통리기무아문사 등 역임. 추사의 제자로서 隸書를 잘 썼고, 文章과 墨蘭에 능하다.

71) 劉擘(1719-1804) : 淸 山東 諸城 사람. 字는 崇如, 號는 石庵, 淸愛堂. 乾隆 연간(1736-1795)의 進士. 體人閣 大學士와 太子太保 등의 벼슬을 지내다. 정치나 문장에서 보다 書藝家로 이름을 크게 떨치다. 시호는 文淸이고 〈石庵詩集〉(〈劉文淸公遺集〉)이 남아 있다.

코 내주지 않을 것이니 아무쪼록 이것을 조심해서 아껴 쓰기를 祝手하고 祝手하네! 간혹 장사치들이 본떠 만든 것이 있는데, 모두 가짜일 뿐 石庵의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닐세! 石庵의 孫子⁷²⁾되는 분과 나는 金石學으로 잘 사귀고 있었으므로 그 因緣으로 그것을 얻었을 뿐일세!”⁷³⁾라고 붓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

秋史는 20년전부터 隸書와 楷書를 쓸 때 반드시 淸愛堂筆을 사용하여 왔고, 이 붓이 없는 상황에서는 隸書와 楷書를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즐겨 사용하던 붓이 아닌 그 맥에 있는 行·草書用 붓으로 이 작품과 <圖 3>을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즐겨 쓴 <圖 5>와 같이 方徑古拙한 特有的 書體로 쓰지 못하고, 중년에 중국 燕京에서 還國한 뒤 翁方綱의 영향으로 즐겨 쓴 <圖 4>와 같은 書體를 선택한 것이라 여겨진다.

3) 圖章

이 작품에 사용된 圖章 <圖 2>은 크기가 2.9×2.8cm이고, '石澗人'이라고 隸書體로 陰刻되어 있다. 字體는 가볍고 팍 찬 느낌이 들지 않도록 飛白을 가미하고, 八分體에 근원을 둔 書體이다. 글자의 호흡이 고르고, 氣韻 중에 감동이 있으며 짜임새의 하나 하나가 생동감과 치밀함이 어우러진 圖案이다. 이러한 篆刻은 문자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書體를 통달하여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金石學과 篆刻法에도 상당한 식견을 가져야 가능하다 볼 수 있다.

秋史의 隸書는 일반적으로 漢代藝術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古拙하고 거칠(粗)며 묵직함(重)의 요소를 지님과 아울러, 예리하고 힘찬 運筆에 의한 字體, 結構, 章法이 풍부한 과격적인 변화에 따른 개성이 매우 강렬한 筆墨의 정취를 지니고 있다.⁷⁴⁾

그러면서도 隸書體로 작품을 쓸 때, 한 文章 안에서 여러 개의 점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弧劃, 뭉툭한 點 또는 橫劃 등을 자유자재로 변화를 준 점의 다변화가

72) 戀情 劉喜海를 말하며, 石庵 劉暉의 曾孫이다. 秋史와 交好를 맺고 朝鮮金石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어 海東金石苑을 저술하였다.

73) 金翊煥編, 阮堂先生全集 卷二, (京城: 永生堂, 昭和九年) p. 37左.
“淸愛堂筆一枝 又茲寄呈 此是石庵舊製 曾得數枝 巨細剛柔 無不如意 鄙作隸楷 專用此筆 以一枝用之 二十年不敗 割愛舉似非令斷不出 須領此苦心寶用 是祝是祝 或有坊間 製皆毫 非出於石庵家中者也 石庵令孫 與鄙有金石交好 因緣得之耳”

74) 尹壽榮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p. 234.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相異한 형태의 점들은 각 글자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독특하고 斬新한 字形을 가진 結構를 보여주기 때문이다.⁷⁵⁾

그러나 同日에 쓴 것으로 짐작되는 <圖 2>와 <圖 3>을 비교하여 볼 때 한 文章 안에 여러 개의 點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橫劃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도장의 재료는 일반적으로 돌, 나무, 또는 뿔을 사용하나, 여기에 날인된 圖章은 刻術과 刀刻의 흔적, 그리고 印朱가 묻고, 묻지 않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옹기 또는 土瓦片으로 추정되지만 印朱가 묻지 않은 白色部分을 顯微鏡으로 보면 옹기에서 나타나는 문양보다 거칠다. 따라서 이 도장은 土瓦片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2. 原文書誌의 特性

1) 原文의 내용

꽃이 풍우를 지내니 사람들은 모두 애석해 하고, (花經風雨人方惜)
선비가 강호에 있으니 도가 다시 고귀하구나. (士在江湖道更尊)
정월 하순 요산거인이 팔병을 시험하면서 (孟春之下瀚 樂汕居人 試病腕)

2) 絶句의 特性

(1) 花經風雨人方惜 士在江湖道更尊

“花經風雨人方惜”은 玉花를 念頭に 두고 지은 글로 짐작된다.

玉花는 나이가 비록 30이 넘었다 하더라도 完熟期에 접어든 고운 姿態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서는 추종을 불허하는 歌舞의 功力과 선비들의 詩會에도 서슴없이 끼여들 만큼 공부도 하여 아무나 넘보지 못하는 지체가 있는 女人이지만 依支할 곳 없는 외로운 여인이다.

“士在江湖道更尊”은 金繼祖를 念頭に 두고 지은 글로 짐작된다.

金繼祖는 대학자인 道村 金仁恒의 長男으로 태어나서 學問과 家業을 이어 받았으나, 일생동안 官職에 나아가지 않고 鄉里에 살면서 후손의 養育과 후학을 지도하는 선비이다. 때로는 藥을 조제하여 病을 치료하고 茶道에도 深醉하여 직접 茶를 제조하여

75) 최순택, 秋史의 書畫世界, (서울 : 학문사, 1996) p. 17.

마시면서 자연과 親和하여 생활하는 草野의 선비이다.

(2) 孟春之下翰

秋史는 1849년 1월 13일부터 2월 7일경까지 金繼祖의 집에서 艸衣, 玉花와 같이 머물렀다. 따라서 이 용어는 1849년 1월 하순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樂汕居人

이 文章은 樂汕에 사는 사람, 또는 樂汕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樂汕에 사용된 “汕”은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 노는 山川을 뜻한다.⁷⁶⁾

이 용어를 落款에 사용할 때에는 보통 本人이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先代에서 살았던 경우에 사용되던가 아니면 본인의 本貫이나 先代의 幽宅이 있는 지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秋史와 그의 先代에서 이와 연관된 것은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옛 지명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떤 因緣이 있는 處所(地名)를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金繼祖宅에 1개월 정도 머물면서 날마다 본 집 앞의 연못과 연못 속에 놀고 있는 물고기, 집 뜰에 무성히 자라고 있는 蘭草, 집 주위에 흐르는 맑은 물 등의 자연환경에 陶醉되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4) 試病腕

이 용어는 팔병을 試驗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書藝家들은 ‘病’字를 앞에 붙여 病夫, 病老人, 病處士 등과 같이 元老 또는 謙遜의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秋史는 濟州道에 유배되고 4년이 지난 1844년부터 실제로 팔이 저리고 가려운 病에 들게 되었고, 1845년 여름부터는 이 병이 극심하여 마음먹은 대로 글씨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惡化되어 1849년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올 때까지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한 고통을 주었던 병이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팔병이 金繼祖의 극진한 간호와 湯劑 덕분에 치료되었고, 이 작품을 씌으로써 팔병이 완치되었는지를 試驗하였던 것이다.

76) 金赫濟 編, 明文漢韓大字典, (서울 : 明文堂, 1984), p. 578.

“張晏曰朝鮮有濕水、洌水、汕水、三水合爲洌水、疑樂浪朝鮮取名於此”

(5) 石澆人

이 용어는 陰刻으로 새긴 圖章에 사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장에는 名이나 號를 새기고, 號는 字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형식에 의하여 지어졌으며 字와 다른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高麗의 李奎報(1168-1241)는 첫째 居處한 場所를 취한 경우, 둘째 그가 접하고 있는 상징적인 嗜好物을 취한 경우, 셋째 그가 얻은 바를 실상으로 삼는다 하였다.⁷⁷⁾ 그리고 申用浩 역시 이것을 세분하여 첫째 場所에 따라 삼은 것, 둘째 嗜好에 따라 삼은 것, 셋째 指向點에 따라 삼은 것, 넷째 處地나 狀況에 따라 삼은 경우로 나누었다.⁷⁸⁾

秋史의 다양한 號, 즉 지금까지 알려진 落款과 號 역시 위의 作例 범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⁷⁹⁾ 그러므로 이 작품에 사용된 '石澆人' 역시 위의 作例 범위에서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文獻과 地名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石澆' 또는 '石澆人'과 관련될 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上京한 이후 自家別墅인 瓜地草堂과 부모님의 幽宅이 있는 石浦(돌무계)에서 居住하다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과 濟州道 유배에서 석방된 후 海南에 있는 金繼祖宅에서 장기간 머물게 되었을 때 그 곳의 環境, 즉 "뜰에는 난을 기르고(徑逼幽蘭), 문 밖에는 연못도 봤다(門臨曲沼)"는 데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선 石浦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곳은 果川 청계산 옥녀봉 아래 가운데 마을 남쪽에 있고, 마을 한편으로는 양재천에 합류하는 돌무계내가 흐른다. 돌무계내는 옥녀봉 북쪽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다가 진투리들판 동쪽의 냇들을 적서 놓고 양재천으로 흘러든다. 이 내의 중간쯤에 石浦(돌무계)라는 마을이 있다.⁸⁰⁾

秋史가 上京한 이후 이 곳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指向點에 따라 號로 삼았다면 '石浦' 또는 '石浦人'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물론 前代에서 '石浦'⁸¹⁾라 사용한 예가 있음을 알았다면 '石浦人'이라고는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石浦人'이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石浦와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77) 李奎報, "白雲居士語錄", 東國李相國集 卷20 所收.

78) 姜憲圭, 申用浩 공편, 韓國人의 字와 號. (서울: 啓明文化社, 1993), p.39.

79) 金恩美, "秋史 金正喜의 號에 대한 研究", (碩士論文, 圓光大學校大學院, 1997), p.66.

80) 果川鄕土史編纂委員會 編, 果川鄕土史, 下卷. (과천: 뿌리出版社, 1993), p.696.

81) 李頊(1641-1726): 朝鮮後期の 學者. 字는 敬仲, 號는 석포, 本貫은 全州이며 父는 時謙, 母는 順天 金氏이다.

다음은 장기간 체류하였던 海南의 金繼祖宅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곳은 집안에 난초가 가득하고, 문 밖에는 물고기가 노는 연못이 있는 곳이었다. 따라서 그가 每日 본 그 곳의 환경에 同化되어 자기 스스로 그러한 환경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指向點과 處地나 狀況에 따라 號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石塘' 또는 '石澗'이라 사용할 수 있었겠으나 前代에 '石塘'⁸²⁾ 83)이라 사용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石澗人'이라 사용하게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

VI. 結 言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秋史는 팔병(病腕)이 극심하여 작품은 물론 가솔에게 보낼 書翰조차 쓰지 못할 지경으로 1848년 12월 6일 濟州道 유배에서 석방되었고, 1849년 1월 8일 오후 海南의 於 蘭鎮으로 상륙하였다. 그리고 海南에서 체류할 때 1월 13일부터 醫術에 박통한 金繼祖를 만나 그 댁에서 艸衣 玉花와 더불어 2월 7일 경까지 元氣의 회복과 팔병을 치료하였고, 그 好意에 사례하기 위하여 그 댁에 있었던 紙筆墨으로 <圖 3>을 써 줄 때 본 작품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작품에 나타난 書誌의 특성은 ① “花經風雨人方惜”은 玉花를, “士在江湖道更尊”은 金繼祖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② “孟春之下瀚”은 1849년 정월 하순을 지칭하는 것이다. ③ ‘樂汕居人’과 ‘石澗人’은 金繼祖宅의 환경에 陶醉되어 사용한 것이다. ④ “試病腕”은 실제로 있었던 팔병을 치료하고 사용한 것이다. ⑤ 圖章은 土瓦片에다 秋史가 직접 刻印하여 一回用으로 사용된 듯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落款 ‘樂汕居人’과 圖章 ‘石澗人’은 秋史와 동일한 관계를 가진 것이며, 秋史는 자신이 생활한 주변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변할 때마다 재치 있게 취하여 藝術作品을 창작해 냈을 뿐만 아니라 號로 표현하여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다양하고도 많은 號를 남겼다.

앞으로도 秋史에 관하여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에 관하여 꾸준히 研究하고자 한다.

82) 權俠(1542-1618) : 字는 思省, 號는 石塘, 本貫은 安東. 동지중추부사 常의 아들.

83) 鄭錫龜(1790-1866) : 字는 夢瑞, 號는 石塘, 本貫은 光州이며 朝鮮後期の 學者.

參 考 文 獻

- 果川鄉土史 下卷. 과천 : 뿌리出版社., 1993.
- 金命孝. 道村遺稿. 木板本. 1883.
- 김봉호. 초의 선사와 완당 김정희. 서울 : 우리출판사, 1992.
- 金世豪. 秋史藝術의 形成科程.. 서울 : 예술의 전당, 1992.
- 金膺顯. “書法の 발달과 藝術性”. 韓國의 美 卷6. 서울 : 중앙일보사, 1990.
- 金正喜書. 阮堂墨蹟. 拓本.
- 金正喜書. 秋史法帖. 拓本.
- 閔泰植. “阮堂의 學風과 書藝”. 韓國學. 서울 : 韓國學研究所, 1978.
- 宣柱善. 書藝通論. 益山 : 圓光大學校, 1996.
- 최순택. 秋史의 書畫世界. 서울 : 학문사, 1996.
- 崔完秀. “秋史 金正喜”. 果川鄉土史 下卷. 果川鄉土史編纂委員會, 1993.
- 최완수. 秋史精華. 서울 : 知識産業社, 1984.
- 崔完秀譯. 秋史名品帖 別集. 서울 : 知識産業社, 1978.
- 崔完秀. (新譯)秋史集. 서울 : 玄岩社, 1976.
- 海南郡史編纂委員會. 海南郡史. 光州 : 全南日報出版局, 1980

〈圖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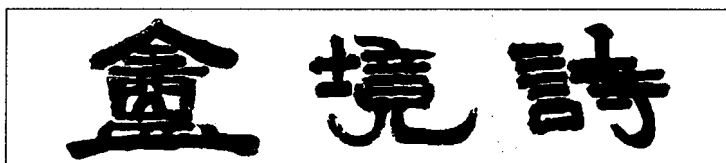


〈圖 1〉花經士在 行書七言聯 紙本墨書 各30×117cm

大田 個人藏



〈圖 2〉圖章 石塘人 2.9×2.8cm



〈圖 3〉詩境盦 隸書懸板 30×127cm 海南 個人藏



〈圖 4〉詩境樓 隸書懸板 35×104.8cm 華嚴寺藏



〈圖 5〉新安舊家 隸書 紙本墨書 164.2×39.3cm 潤松美術館藏